

## □ 기획연재 □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10)

## 세계를 향한 학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포항공과대학교 박찬모\*

먼저 학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좌경통 회장을 비롯한 현 회장단과 임원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택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회원의 한사람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미래를 향해 현재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한국정보과학회가 발족한 지도 내년 3월이면 4반세기가 된다. 1973년 1월 본인이 10여년 간의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한국과학기술원(당시는 한국과학원이라 했음)에 부임하여 제 1회 학생모집에 여념이 없던 시절 한국정보과학회 창립 움직임이 있었고 미력하나마 본인도 일조를 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개무량하다. 유학차 도미하여 1960년 9월부터 제1세대 컴퓨터인 IBM704를 필두로 컴퓨터의 변천과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컴퓨터와 더불어 생활했고 1963년부터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학회인 ACM의 회원이 되었기에 컴퓨터 학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꼈던 터에 한국에 컴퓨터 관련 학회가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는 전자계산학과나 컴퓨터공학과가 있는 대학이 매우 적었고 컴퓨터의 활용은 대한항공, 외환은행 등의 기업체와 KIST와 같은 연구소에서 활발하였기 때문에 학회창립에도 이러한 사정이 많이 고려되어 산학연을 망라한 창립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초대회장에는 KIST 소장이셨던 한상준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다.

본인은 초대 편집간사로 임명되어 편집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이 매우 보람된 일로 남는 추억이 되었다.

그때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 회장 시절의 회고담으로 넘어갈까 한다. 학회가 창립되었던 시절은 박정희 정권시대로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하여 ‘정보’라는 말에 많은 국민이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킬 정도였으며 정부에서도 ‘정보’라는 단어를 단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달갑지 않게 여겼던 시절이다. 그리하여 학회 명칭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영어 이름으로 ‘Korea Information Science Society’라 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보과학회’라 하면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 회원 모집 등에서 곤란하리라는 우려도 많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보’는 ‘Intelligence’로 ‘첩보’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고치면 그것을 고쳐야지 ‘Information’을 ‘정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지금의 학회 명칭이 탄생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생각할 때 잘된 일이라 하겠다.

학회가 창립된 지 20주년 되는 1993년 1월에 본인은 학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사실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1976년 여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1990년 1월 포항공대에 부임하기까지 내내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보과학회의 평의원이나 이사로 봉사하는 것은 좋으나 회장직은 본국에서 활약했던 회원이 맡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나 과학원 제자들과 주위의 여러분이 미국에 가 있어 하지 못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적극 설득하여 회장 후보자로 나섰던

\*종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11대 회장

것이다. 다행히 전회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김용서, 왕창종, 우치수 부회장님과 홍영식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학회사무국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과없이 회장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본인의 회장 재임시 특이할 사항은 회장임기제의 변화와 국제무대로의 도약이었다. 회장임기제의 변화는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차기회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다시 회장임기가 2년으로 복귀됐지만 본인은 아직도 학회업무의 연속성과 학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장직을 맡기전 1년간 차기회장으로 회무를 파악하고 그후 1년간 회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당시 차기회장제 도입에 참여하신 이석호 차기회장의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

또 한 가지 학회가 해야 할 일은 세계무대를 향해 도약하는 것이었다. 본인이 학회장직을 맡을 때까지 학회를 소개하는 영문 소책자가 없었으나 KAIST의 황규영 교수의 노력으로 영문 소책자를 발간하여 국제회의 참여시 대

장에 비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Info Science '93 국제학술대회를 Swiss Grand Hotel에서 1993년 10월에 개최하여 IFIP 회장, 미국 IEEE Computer Society 회장, ACM 동경 지부장, 재미한인정보과학기술자 협회장 등을 초청하여 한국정보과학회의 위상 제고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고 그때 수고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비야흐로 우리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향하여 매진할 때가 되었다. 우리학회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약해야만 하리라 믿는다. 우리의 무대는 이제 국내만이 아니고 세계여야만 한다. IFIP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유사학회와의 연계도 공고히 해야 하며 한국정보과학회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 회장단, 임원진, 회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리라 본다.

끝으로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붓을 놓는다.

● '97 동계 데이터베이스 학술대회 ●

- 일 자 : 1998년 2월 12일(목)~13일(금)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주 최 : 데이터베이스연구회
- 논문마감일 : 1997년 12월 22일(월)
- 논문제출처 :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강현철 교수  
Tel. 02-820-5306, Fax. 02-820-5301
- 문 의 처 : 충북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류근호 교수  
Tel. 0431-61-2254, E-mail : khryu@dblab.chungbuk.ac.kr